

추신수 두 아들 대한민국 국적 이탈 “병역 기피 목적 아니야”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 선수인 추신수(37)의 두 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 지난 5월 장남의 중학교 졸업식에서 추신수(오른쪽)와 장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5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추 선수의 두 아들은 최근 한국 국적을 이탈했다. 국적이탈은 외국인 부모 자녀이거나 외국에서 태어난 경우 갖게 되는 복수 국적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적이탈자 대부분은 병역의무 대상자인 만18세 미만 한인 2세 남성으로 알려졌다. 국적이탈자는 지난해부터 급증했다. 병역 의무가 강화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적이탈자는 6,986명으로 전년 동기 1,905명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국적이탈자 급증 배경에는 지난해 5월 시행된 재외동포법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시행된 개정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태어난 이중국적자가 병역의무 이행 없이 18세가 넘어 한국 국적에서 이탈하게 되면 40세까지 재외동포비자(F-4) 자격을 받을 수 없다. 기존 나이 기준 38세에서 2세 상향된 것이다. 또 기존에는 병역을 회피한 이에 게만 F-4 비자 발급을 거부했는데 개정안 시행 후에는 병역을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과 상관없이 모두 F-4 비자 발급이

거부된다.

다만 추 선수의 아들이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국적이탈을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추 선수 측은 국적 문제와 관련해 미국에서 태어나 생활해 온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해 이 같이

결정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추 선수의 에이전트인 갤럭시 SM의 송재우 이사는 "(추 선수가) 재외동포법이 바뀐 지난해부터 자녀들과 국적 문제와 관련해 상의를 했다고 한다."면서 "부모로서 한국적 상황과 정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지만 미국에서 태어나고 생활하면서 한국보다는 미국이 더 익숙할 수 밖에 없는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이들이 이제 겨우 중학생과 초등학생으로 어려서 병역 문제를 고려할 단계가 아니고 법이 바뀌었으니까 아이들의 나이가 더 들기 전에 국적 문제를 처리한 것으로 안다."며 "추 선수가 공인이지만 아직 어린 자녀들의 프라이버시도 존중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추신수의 두 아들은 각각 14세, 11세로 장남은 추신수가 시애틀 매리너스 산하 마이너리그 팀에서 뛰던 2005년에, 차남은 클리블랜드 소속 시절인 2009년에 출생했다.

MLB.com “사이영상 후보 1위는 류현진”

류현진(32·LA다저스)이 MLB.com 기자단 대상 사이영상 중간 투표에서 맥스 슈어저(35·워싱턴 내셔널스)를 제치고 우위를 점했다.

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은 5일 47명의 메이저리그 기자단이 선정한 사이영상 중간 투표 결과를 밝혔다. 투표 방식은 1위가 5점, 2위가 3점, 3위가 1점을 각각 받는 방식으로 류현진은 47명의 기자단 중 31명으로부터 1위 표를 받았다. 류현진과 사이영상 경쟁을 벌이고 있는 슈어저는 16명으로부터 1위 표를 받으며 2위에 자리했다. 제이콥 디그롬(뉴욕 메츠) 역시 소수 표를 받았다.

아메리칸리그에서는 저스틴 벌랜더가 37표, 게릿 콜(이상 휴스턴)이 9표, 찰리 모튼(탬파베이)이 1표를 각각 획득했다.

시즌 초반부터 팽팽한 레이스를 펼치던 류현진과 슈어저였다. 지난 6월 말에는 류현진이 35명 중 27명으로부터 1위 표를 얻으며 선두에 올랐다. 그러다 지난달 16일 MLB.com이 공개한 중간 투표 결과에서는 슈어저가 류현진을 다시 제쳤다. 당시 기자단 38명 중 슈어저가 26명으로부터 1위 표를 얻었다. 류현진은 나머지 11명으로부터 1위 표를 받아 2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이번 중간 투표에서는

류현진이 더 많은 표를 받으며 선두로 올라섰다.

MLB.com은 “류현진은 메이저리그 전체 평균자책점 1위(1.53), 내셔널리그 승률 1위(0.846)를 각각 달리고 있다. 이 두 수치는 역사적으로 사이영상 수상을 가능할 수 있는 척도”라고 밝혔다.

슈어저에 대해서는 “앞서 사이영상을 3차례 수상한 슈어저는 대체선수 대비 승리기여도(WAR·5.3), 탈삼진율(35.3%), 수비 무관 평균자책점(FIP·2.09)까지 최근 중요해진 세 가지 지표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면서 “결국 올 시즌 사이영상의 향방은 건강할 그리고 어떤 스榻을 선호하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MLB.com은 “류현진은 최근 목 부상으로 부상자 리스트에 올라있다. 이것이 그의 첫 사이영상 수상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지도 모른다.”면서도 “그와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심각한 부상이 아니라고 한다. 또 그에게 짧은 휴식을 주는 차원에서 동기 부여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995년 그렉 매덕스가 역대 사이영상 최소 볼넷(32개)을 기록했는데, 류현진은 현재 16개만 기록 중”이라며 뛰어난 제구력을 칭찬했다.

내과 · 노인과 전문병원

이광혁 내과

이민국(USCIS)
신체검사
지정병원

건강 검진 스페셜

\$99

1. 내과 전문의 상담, 진찰 및 치료 (1회)

2. 종합혈액검사:

혈당검사, 간기능 검사, 신장기능검사, 갑상선호르몬검사
종합콜레스테롤검사, 중성지방검사, 전해질검사
혈중단백질검사, 칼슘검사, 빈혈검사, 백혈구검사
적혈구검사, 혈소판검사, 요산검사, 췌장효소검사

3. 정밀소변검사:

Color, Character, Specific Gravity, PH, Glucose, Protein
Ketones, Blood, Urobilinogen, Bilirubin, Nitrite, WBC
RBC, Epithelial Cells, Bacteria, Casts, Crystals

진료시간 : 9am-6pm(월화목금), 9am-1pm(수토)

Tel: 714.879.8700

400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각종보험, 메디케어, PPO, HMO 받습니다.

John K. Lee, M.D.

미국 내과보드 전문의
미국 노인과보드 전문의
Diplomate, American Board of Internal Medicine
CAQ in Geriatric Medicine
Member, 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
Member, American Geriatrics Society
Member, American Medical Association